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03위 성인

성 정문호 바르톨로메오 (1801-1866)

정문호는 충청도 임천(林川) 출신으로 고향에서 교리를 배우고 입교하였다. 독실한 신앙생활을 한 그는 박해를 피해 여러 지역을 유랑하다가 병인박해 무렵엔 전주 지방 교우촌인 대성동 신리에 정착하였다. 평소 품행이 단정하고 성품이 강직하여 교우들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평판이 좋았다. 정문호는 1866년 12월 초, 사람을 시켜 전주 감영의 동태를 살피게 하였는데, 미처 소식이 돌아오기도 전에 손선지, 한재권 등과 함께 체포되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에 끌려가면서 “오늘 우리는 천국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날이다. 오늘은 정말 기뻐해야 할 날이다.”라며 진심으로 순교를 기뻐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12월 13일, 5명의 교우와 함께 전주 서문 밖 숲정사에서 참수되어 66세의 나이로 순교하였다.



성화_김형주 작,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4

대림 제4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이사 45,8

하늘아, 위에서 이슬을 내려라. 구름아, 의로움을 뿌려라.
땅은 열려 구원이 피어나게 하여라.

제1독서 미카 5,1-4ㄱ

화답송 시편 80(79),2ㄱㄷㄹ과 3ㄴㄷ,15-16,18-19(◎4)

◎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커룹들 위에 좌
정하신 분, 광채와 함께 나타나소서. 당신 권능을 떨치시
어, 저희를 도우러 오소서. ◎

○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
지를, 당신 위해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

○ 당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위해 키우신 인간의
아들에게 손을 얹으소서.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오
리다. 저희를 살려 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오리다. ◎

제2독서 히브 10,5-10

복음 환호송 루카 1,38

◎ 알렐루야.

○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
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복음 루카 1,39-45

영성체송 이사 7,14 참조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
누엘이라 하리라.

한나의 노래



아인 카렘의 세례자 요한 탄생 성당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1사무 1,2에서 에프라임 땅에 살던 엘카나의 첫째 아내로 소개됩니다. 당시 상황은 한나가 오랫동안 불임이라 엘카나 집안에 후처인 프닌나가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는 둘째 부인 프닌나에게 조롱 당하며(6절) 괴로움을 겪다가 주님께 서원하는데요(11절), 서원의 내용이 역설적입니다. 아이를 얻게 된다면 아이를 주님께 바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얻기 위해 아이를 포기하겠다고 서약한 셈이니, 당시 한나의 신세가 얼마나 암담했는지 알 듯 합니다.

하지만 성소에서 기도한 뒤에는 한나의 마음이 누그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의 개인 사정을 모르는 사제 엘리가 그를 축복해주자, 그가 음식도 먹고 얼굴도 전처럼 어둡지 않았다고 합니다(17-18절). 그리고 바람대로 아이를 낳은 뒤, 약속대로 아이를 봉헌하며 부른 노래가 2,1-10에 이어 집니다. 사실, 찬양의 내용이 한나의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아이 못낳던 여자는 일곱을 낳고”(5절)라는 구절은 그에게 일어난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한나의 찬양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건 그가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짐작하게 합니다. 여인이 부른 노래가 성경에 기록된 예는 정말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누이이자 여예언자인 미르얌은 탈출 15,20-22에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고,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한 여자 판관 드보라가 부른 노래는 판관 5장에 나옵니다. 한나의 찬양이 특별한 점은, 그가

찬미 노래를 부른 시점이 소원이 이뤄진 임신 때나 출산 때가 아니라, 서원대로 아이를 바칠 때였다는 것입니다. 아이와 떨어지게 되면 슬프고 괴로울 텐데 한나는 하느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이는 일종의 ‘환희의 신비’라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환희의 신비는 성모님 이전에 한나에게서 먼저 이루어진 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사무엘을 낳아 이를 극복하게 해준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는 이후 문헌에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루카 1-2장이 대표적입니다. 이 대목 역시 불임 부부였던 즈카르야 사제와 엘리사벳이 세례자 요한을 얻게 되는 사연으로 시작합니다(루카 1,7). 한나의 노래는 “마리아의 노래”, 곧 ‘마니피캇’에도 비슷하게 반영됩니다. 또한 한나의 사연은 신약 외경 「야고보 원복음」에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거기서 불임 부부 요아킴과 안나는 아이를 청하며 탄원하는데, 안나는 히브리어 한나의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그리스어에는 [히]에 해당하는 문자가 없어 ‘안나’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수태고지를 받자 부부는 ‘아이를 주님께 예물로 바칠 것’을 서원합니다. 이어, 요아킴과 안나의 딸 마리아가 세 살 되던 해 성전에 봉헌합니다. 이런 일련의 이야기는, 프닌나의 조롱을 악으로 되갚지 않고 간절한 바람을 진취적으로 풀어낸 한나가 하느님 백성이 지나온 역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

「모든 형제들」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화 사명 이행 - 평화 증진과 세계 공동체 건설

사회 현안을 보기, 복음과 전승,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기,
빛과 누룩으로 행동하기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마태 28,20)하려는
프란치스코의 「모든 형제들」

마무리하며 ① -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 인류 구원과 사회 쇄신을 위한 대화의 언어, 복음화의 수단

그리스도 신앙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께서 보내신 초대장이며 동시에 소환장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설 때 예복을 갖춰 입게 도와주실 뿐 아니라 그 길을 안내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빛과 누룩과 소금으로 세상에 남겨 두셨다는 점에서, 신앙인은 사람들을 일치시키고 하느님과 결합하게 하는 도구이며 표지입니다. 하느님의 초대와 소환에 신앙인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응답하는데, 이 응답을 ‘교회의 복음화 사명 수행’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신앙 고백, 신비 거행(전례), 기도라는 ‘종교적 사명’(religious mission)과, 모든 생명과 인간 존엄의 존중, 공동선의 실현, 다시 말해 생태적 전환의 삶이라는 ‘사회적 사명’(social mission)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사명은 별개가 아니라, 긴밀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종교적 사명 수행을 통해 하느님께 영적인 힘을 얻으며, 그 힘으로 인간 구원과 사회 쇄신이라는 ‘하느님의 놀라운 업적’에 헌신하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8개월 동안 지면을 통해 복음화 사명의 ‘사회적 차원’을 살펴보았는데, 몇 가지 그 핵심을 정리하면서 기획을 마치려고 합니다.

1. 가톨릭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은 교회가 복음화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문화, 경제-사회, 정치, 외교’ 등 사회적 활동

(事)뿐 아니라 ‘과학, 기술, 창조 질서’ 등 사회적 실재(物)에 직·간접, 긍정·부정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사는 ‘사회적 존재’이며 창조 질서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 가톨릭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은 사물(事物)에 관한 현안을 ‘보기, 성찰하기, 행동하기’라는 방법론으로 그 가르침을 집적(集積)합니다.
- 가톨릭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은 사회적 현안들에 신앙과 이성의 빛을 비춥니다. 구체적으로 교회는 ‘복음과 교회 전승의 가르침’ ‘철학적 방법론과 성과’ ‘(인문·사회·자연) 과학적 방법론과 성과’ 그리고 ‘인류의 경험에서 축적된 지혜’와의 성실하고 정직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웃 사랑의 길을 찾고 제안하며 헌신합니다.
- 가톨릭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은 ‘성찰 원리, 판단 기준, 행동 지침’이라는 도구로 ‘인간 존엄, 공동선, 모든 재화의 보편 의도와 공동 사용권, 사회적 약자 최우선, 보조, 연대, 참여와 책임’이라는 일곱 원리와, 모든 사회 활동에서 추구해야 할 ‘진리와 자유, 정의와 사랑’이라는 네 개의 근본 가치들을 제시합니다. 이 원리와 가치들은 그리스도인이 선의의 모든 이와 나눌 대화의 ‘언어’이며 협력의 길입니다. “교회는 오로지 하나의 목적을 추구한다. 곧 성령의 인도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일을 계속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오셨으며, 심판하시기보다는 구원하시고 섬김을 받으시기보다는 섬기러 오셨다”(「사목헌장」 3항).

초라한 마구간에 오신 그리스도

르네상스의 놀라운 문화유산을 간직한 도시 피렌체, 그곳 ‘아카데미아 미술관’ ‘우피치 미술관’에는 유명한 조각과 회화 작품이 전시되어 있어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반드시 방문해야 할 명소가 있습니다. 바로 도미니코회의 ‘산 마르코 수도원’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고요한 성탄 그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후경에는 거대한 바위 모습의 산이 있고, 중앙에는 동굴이 있습니다. 캄캄한 동굴 입구에는 소박한 마구간이 있는데, 마구간과 동굴이 연결된 게 좀 어색하지 않나요? 이는 동방교회 ‘성탄 이콘’의 영향인데, 암흑을 뚫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표현한 방식입니다. 빛을 받아 환한 지붕에는 구름이 있고, 그 위로 경배드리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물통 양편으로는 나귀와 소가 있는데, 이들은 이사야서에서 말하듯, 어리석은 인간보다 먼저 그리스도 왕을 알아본 순수한 존재들입니다. 그들 앞에는 천상 세계를 상징하는 푸른 색의 울타리가 있는데, 이는 지상과 천상계를 구분하면서 전경 인물들의 천상 배경이 되어줍니다.

화면 전경에는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마리아와 요셉이 있습니다. 마리아 뒤에는 주님의 탄생을 관상하는 성녀가 있고, 맨 우측 푸른 망토를 두른 사람은 도미니코회 최초 순교자 ‘성 베드로’입니다. 머리에 낫을 맞아 피가 흥건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우리의 눈길을 끄는 분은 지푸라기 위 먼지 날리는 흙바닥에 누워계신 아기 예수님입니다. 이는 14세기 스웨덴의 성녀 비르지타가 본 환시에서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높으신 분이 가난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일 베아토 프라 안젤리코, 〈마구간〉, 1440~1442년, 프레스코화, 176cm×148cm, 산 마르코 수도원(이탈리아 피렌체)

이 성화의 작가는 ‘귀도 다 비키오’(Guido da Vicchio, c.1390-1455)입니다. 애칭인 ‘일 베아토 프라 안젤리코’(Il Beato Fra Angelico), 곧 ‘축복받은 천사 같은 형제’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수사 화가입니다. 그에게 그림은 주님을 향한 열렬한 기도와 봉헌이었습니다. 그의 작품에서 스며 나오는 영성과 아름다움은 시공간을 넘어 후대 예술가들, 특히 성 미술 작가들에게 이정표를 제시해 줍니다.

개인주의가 기세를 부리고 순수성을 상실해 가는 오늘날, 그의 맑고 순수한 색채, 간결한 선과 구도 그리고 단순한 형태로 담아낸 작품은 과장 없는 절제미로 깊은 감동을 줍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 밤, 가장 가난한 곳에 세상의 왕이 나셨습니다! 🌟



교구 소식

동두천어린이밥집 포이마이노 직원 채용

모집 1명 (계약직, 추후 정규직 재임용 가능)

근무 주5일 (40시간)

장소 어린이청소년밥집 포이마이노 (동두천시 생연동)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1부

제출 0810369khk@gmail.com

문의 010-3946-9018

2025년 신앙교육원 겨울 계절 학기

일시 1/15~2/26, 매주(수) 19:30~21:40 [6주간]

장소 백석동 성당

대상 신앙교육원 졸업생 선착순 100명 (대면)

회비 12만원 (대면/비대면 동일)

강사 송봉모 토마스 신부, 정천 사도요한 신부, 이승엽 미카엘 신부

문의 031-850-1545, 010-5578-4898

※ 비대면 영상 강의는 누구나 신청 가능

※ 홈페이지 sd.uca.or.kr/set 참조

신청 ▶



한마음 사계 피정 - 2025년 2월

일시 2/7(금) 16시 ~ 9(주일) 13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주제 하느님 길을 걷다

강사 민범식 안토니오 신부 (서울대교구)

회비 1인 20만원 (1인 1실)

문의 031-850-1449 선교사목국

※ 한마음 사계 피정은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 교구소식 참조

신청 ▶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발급 방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hometax.go.kr)

필요 서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당 사무실에 비치, 신규 1회 제출)

발급 시기 2025년 1월 15일경 발급 예정

※ 동의서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동의서 미제출 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서 양식은 본당 사무실에서 발급)

※ 동의서를 한 번이라도 제출한 분은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제출 동의서 효력 유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미제출자는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1회 제출)

※ 교무금 책정자 변경은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이후에는 자료가 모두 국세청으로 이관되어 변경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미사 · 피정 ▶▶

청주 초정성령회관 송년대피정

일시: 12/27(금) 20시 ~ 29(주일) 14시 [2박3일]

장소: 초정성령회관

회비: 2만원 (청소년 무료)

강사: 김완식 요셉, 양창우 신부, 박효철 신부

버스: 조치원 역 저녁 (18:20 출발)

청주고속버스 터미널 다이소 맞은편 (18:40 출발)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2025 살레시오 겨울 성소 피정

날짜: 2/7(금)~9(주일)

장소: 살레시오회 관구관

대상: 건강한 고1~35세 미만 미혼 남성

접수: 1/31(금)까지

문의: 010-6221-3520

2025년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 대피정

일시: 1/4(토) 15시~18시

장소: 가톨릭의과대학 의학연구원 2층 대강당
(서울성모병원)

내용: 새해맞이 성모님 봉헌식, 미사, 성체조배, 성체거동

미사: 구요비 읍 주교

대상: 가톨릭 청년, 청소년 및 가족동반 신자

회비: 1만원 [KB국민 794001-04-122952]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AYG)

의정부교구 성령새신 금요밤 기도회

일시: 12/27(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송년의 밤

강사: 이형진 가브리엘 (찬양선교사)

문의: 010-2127-0032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1/2(목)~10(금), 2/14(금)~22(토)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피정의집

지혜의 샘 프로그램

목요 치유 피정: 1/2(목) 10:30~17:30

강사: 한연홍 신부, 한영미 회장

기초 히브리어 본문 읽기 특강:

1/8~22, 2/5~19, 매주(수) 19시~21시

강사: 서한석 신부 (가톨릭대 학부대학장)

내용: 창세 3장 히브리어 본문 읽기

(그리스어 알파벳과 주님의기도 읽기)

장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61-1 지혜의 샘

문의: 010-3248-9705

생활성가와 함께하는 한마음 청소년 음악 피정

1차: 2/14(금)~15(토), 2차: 2/15(토)~16(주일)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인원: 100명 (선착순) / 회비: 10만원 (식대 포함)

문의: 010-5399-7626 권성일 미카엘

성모술숲 무료 치유대(對)피정

날짜: 2/7(금)~9(주일), 3/7(금)~9(주일),

4/11(금)~13(주일), 5/9(금)~11(주일)

매월 둘째(금~주일) [2박3일]

주제: '값없이 먹고 자고 원 없이 기도하자'

문의: 010-3209-3955 (문자접수)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눈꽃산행: 1/11(토)~13(월), 1/16(목)~18(토),

1/20(월)~22(수), 2/7(금)~9(주일),

2/21(금)~23(주일), 2/25(화)~27(목)

자연순례: 3/1(토)~3(월), 3/8(토)~10(월)

접수: 064-796-4182, 02-773-1455



교육 · 모집 ▶▶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2025 예수회 청년 마지스서를 3기 모집

이냐시오 영성 배움터: 첫모임: 2/22(토) 14시

(2~7월 월1회 배움터)

여름 제주 마지스대화: 8/5(화)~12(화)

(3일간 파견체험 포함)

대상: 33세 이하 청년 / 회비: 50만원

지원: 신청링크 통해 접수 (면접선택)

문의: magis.kr@gmail.com, 인스타그램 @magis_kr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회 합창단원 모집

연습: 매주(월) 19시, 명동 가톨릭회관

미사: 1,3주(화) 10시, 절두산성지 (매월 2회)

자격: 합창에 관심이 있는 62세 이하 남녀 신자

문의: 010-3898-3408 단장

2025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 (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

접수: 2/14(금)까지

문의: 02-745-8339, ci.catholic.ac.kr

파주 베타니아 클리닉 봉사자 모집

클리닉: 매월 둘째 주일 14시~16:30

모집: 내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소아과 의사

문의: 010-2032-0455 파주 베타니아

재속프란치스코회 의정부지구 지원자 모집

16세 이상의 성실한 가톨릭신자이며,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과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분

기간: 2/28(금)까지

문의: 010-2369-4574 양성담당

010-3207-2525 지구봉사자

유익하고 재밌는 새해맞이 대특강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현대인”

일시: 1/5(주일) 11:40 (교중미사 직후)

장소: 호평동 성당 대성전

강사: 원동일 신부 (제1지구장)

※ 회비 없음, 필요시 인원 제한

꽃마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전문 봉사자 모집

대상: 청소년, 사회복지, 상담학과 전문학사 이상

또는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한 여성

인원: 5명 내외 (자원봉사시간 인정)

문의: 010-5169-7977, flowermali@daum.net

꽃마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오남 성당 사무원 모집

자격: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업무: 사무행정, 회계업무, 행사지원 (경력자 우대)

서류: 자기소개서, 본당신부확인서(또는 추천서),

이력서, 교적사본, 관련자격증사본(해당자)

접수: 채용 시까지

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onam1@uca.or.kr 접수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오남 성당 성가대 지휘자 모집

일시: 매주일 11시 교중미사

자격: 천주교 신자로 성가대 지휘 유경험자

서류: 교적증명서, 이력서(학력, 일반경력 및

가톨릭음악 관련 활동 포함)

접수: 우편 또는 이메일 onam1@uca.or.kr

연습: 평일 및 주일

※ 소정의 수고료 지급 (채용시 마감)

2025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입생 정시 모집

사제지망 일반예신 학생 및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희망하는 수도자, 남·여 평신도를 모집합니다.

자격: 고교졸업(예정)자, 수도자, 만학도로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접수: 12/31(화)~1/3(금) 인터넷 접수

문의: 02-740-9704~5, songsin.catholic.ac.kr

의정부교구 기사사도회 모집

내용: 교구청 행사, 교통 봉사 및 질서 유지
문의: 010-2762-9575 조성환 가브리엘 회장

미사반주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교육

일시: 1/6부터 (월~토) 10주
문의: 02-338-3793 아퀴나소르간연구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
www.holyfca.or.kr

교회법대학원 2025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교황청 승인 교회법학 전문가 양성 기관
접수: 2차_1/6(월)~23(목) 17시까지
제1과정(예비과정): 철학/신학, 62학점
(수업료 학기당 100만원)
제2과정(석사과정): 교회법, 88학점
(수업료의 50% 감면 장학금 혜택)
문의: 02-2164-6521
gscl.catholic.ac.kr/gscl/index.do

예비자 통신교리 - 우편, 사이버, 신자재교육

가톨릭 교리통신교육회 / 회비: 1만원
주소: 서울 중앙우체국 서서함 5234호
전화: 02-2274-1843~4, www.cdcc.co.kr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모집

성경과 교리 등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교리학과 (주간, 주5일)·종교학과 (야간, 주4일):
2년 과정, 선교사(교리교사) 자격증 수여
신학심화과정 (주간, 주3일): 1년 과정,
본원 졸업생(통신과정 포함) 및 준한 과정 이수자
대상: 세례 3년 이상 견진자,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접수: 1/17(금)까지
문의: 02-747-8501, ci.catholic.ac.kr
※ 15명 미만 지원 학과는 개설되지 않을 수 있음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송림동)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봉안: 60년 (30년, 추가 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접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가톨릭꽃동네대학교 2025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가톨릭 보건·복지 특성화 대학, 취업률 79.8% 전국 6위
신입생 전원 장학금, 기숙사 100% 입사 가능
모집: 간호, 자율전공(사회복지·상담심리)
접수: 12/31(화)~1/3(금)
문의: 043-270-0100, 0119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들>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피나음악원: 일산 (금) 11시
문의: 010-9842-8818



안내 · 기타 ▶▶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소규모 양로원) 우양의 집 물품 판매

가격: 청국장(500g) 1만원, 된장(1kg) 2만원,
연잎밥 1만원 (택배가능)
(모든 재료는 국내산으로 직접 제조)
문의: 031-943-2120, 010-9271-4694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라파엘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2/5(수) 나가사키 (4일, 139만원, 아시아나)
2/24(월) 이집트 일주 (14일, 530만원)
3/14(금) 시칠리아, 몰타 (10일, 485만원)
3/9(주일) 포르투갈 일주 (9일, 299만원)
4/7(월) 베트남 다낭 (5일, 155만원, 아시아나)
4/22(화) 이태리 히년 전대사 (11일, 415만원)
문의: 02-778-8565 라파엘여행사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2/14(금)~25(화) 히년 이탈리아 (455만원, 대한항공)
3/7(금)~18(화) 히년 이탈리아 (455만원, 대한항공)
3/9(주일)~20(목) 파티마, 스페인, 루르드 (460만원)
3/11(화)~21(금) 동부유럽 4개국 (395만원)
4/5(토)~16(수) 히년 이탈리아 (435만원, 독일항공)
문의: 02-2281-9070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1/14(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2/10(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2/17(월)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50만원)
3/14(금) 이태리 수도원 및 명소 탐방 (12일, 560만원)
3/28(금) 사도 바오로 발자취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80만원)
5/6(화)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12일, 56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지순례

4/24(목)~5/5(월) 성모발현지 (520만원)
문의: 010-7374-3217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3/17(월) 이탈리아, 알프스, 프랑스 (11일, 550만원)
3/17(월) 유럽 4개국 성모님 발현지 (12일, 535만원)
3/18(화) 산티아고 도보 순례 117km (12일, 495만원)
4/22(화), 5/13(화), 5/20(화) 이탈리아 (11일, 465만원)
5/19(월)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1075만원)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포메스심리상담소 - 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상담자: 010-3201-0520 노경덕 신부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추가하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 스캐너로 QR코드 스캔 홈에서 채널 추가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 의
	한국외방선교수녀회	12/27(금)~29(주일) 14시	서울 보문동 수녀원	010-9353-1773 (미리연락)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소에 관심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10-5195-3217 (성소부)

주님 성탄 대축일

이번 주 수요일, 12월 25일은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을 경축하는 주님 성탄 대축일입니다. 자주 듣는 영어 ‘크리스마스’(Christmas)는 ‘그리스도의 미사’(the mass of Christ)라는 의미입니다. 아르메니아 교회를 제외한 모든 그리스도교에서는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기념합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주님 부활 대축일만을 기념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처럼 주님의 성탄을 경축하게 된 건 300년대 이후입니다. 그런데 동방 교회(그리스, 소아시아, 이집트 등 그리스어를 사용하던 지역의 교회)에서는 200년대에 이미 ‘주님 공현’을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1월 6일에 지내던 공현 축일은 이탈리아 밀라노, 프랑스, 스페인 등지에도 전파되었습니다.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성탄 축일로 지냈다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354년에 쓰인 「로마 주교와 순교자들의 사망 일지」(*Depositio episcoporum, Depositio martyrum*)입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로마에서는 336년에 12월 25일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탄 축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그해 그날부터 축일을 지내기 시작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에 앞서 이미 이 축일이 있어 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12월 25일에 주님 성탄 대축일을 지내게 된 데는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교인들이 지내던 ‘무적의 태양신 탄생 축제’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대응책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아우렐리아누스(270-275 재위)는 274년 시리아의 태양신 공경을 받아들여 12월 25일에 이 축제를 지내게 했습니다. 이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퇴폐적 태양신 숭배 축제에 빠져드는 걸 우려해 같은 날 주님 성탄 대축일을 지내도록 정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엔 “승리의 태양”(말라 3,20)이며 “세상의 빛”(요한 8,12)이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설은 달력 계산에 따른 것입니다.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면서 하지와 동지의 시점을 계산해 정한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하지에 태어났기에, 루카 1,26에 따라 예수님은 그보다 6개월 뒤 동지에 태어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요한 3,30) 했던 세례자 요한의 증언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부터는 매일 해가 점점 짧아지는 데 반해, 동지부터는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에는 밤, 새벽, 낮 모두 세 차례의 미사가 봉헌됩니다. 밤 미사는 ‘첫 미사’ 또는 ‘천사 미사’, 새벽 미사는 ‘둘째 미사’ 또는 ‘목자 미사’, 낮 미사는 ‘셋째 미사’ 또는 ‘말씀 미사’라고 합니다. 순서에 따른 명칭 외의 다른 이름은 그 미사 때 봉독되는 복음의 내용에 따라 붙여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느님의 신적 본성에 참여하게 하려고(Deificatio)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Incarnatio)’. 이는 말씀이신 성자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이유를 단명하게 설명해 주는 오랜 신학 명제입니다. 이제 우리 구원을 위해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겸손하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도록 합시다. ☸